

안전교육 경험과 안전교육 실천에 관한 연구

김인정*

*한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Study on Experience and Practice of Safety Education

In-Jung Kim*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zho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safety education experience and practice of parents who are raising preschool children and the study results are as the following.

For safety education experience state, parents had experience of safety education and mostly received it through communities, TV, Internet, etc. The most common educational content was the traffic safety education.

For safety education practice degree according to number of children, safety education practice was mostly done well with 1~2 children. For safety education practice degree according to family type, safety education practice degree within the family was done most in nuclear families while healthy life habit safety education practice degree was done most in nuclear families and reconstituted families.

Also, for traffic safety education practice degree, it was done well in nuclear families. For respiratory disease safety education practice degree, nuclear families and reconstituted families were the highest and for first aid safety education practice degree, single-parent families were the highest.

For safety knowledge level of parents, safety knowledge of family was the highest, followed by safety knowledge of respiratory disease, and traffic.

For safety education practice degree and safety knowledge according to safety education experience of paren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ractice degree according to safety education experience of parents and there was also difference in practice knowledge according to experience.

There was also education effect in healthy life habit safety knowledge and traffic safety knowledge.

Keyword : Safety Education, Safety Education Experience, Safety Education Practice

1. 서론

우리는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질병에 의한 사망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안전사고의 원인으로서는 어린 아동의 경우 넘어지거나 찢어지는 안전사고(김인

정, 2012)이며, 성인의 경우에는 교통안전사고, 화재·화상 안전사고, 스포츠 안전사고 등(김인정, 2012)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사고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사회의 변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여행이나 취미생활의 증가로 다양한 바깥활동 현상이 그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 Corresponding author : In-Jung Kim,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Hanzhong University in Donghae, Gangwon-do

M · P : 010-6338 -4406, E-mail : hju4406@hanmail.net

Received April 16, 2014; Revision Received June 18, 2014; Accepted June 18, 2014.

유아는 발달단계상 자신 스스로 신체를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여 예상하지 못한 위험한 상황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이 미숙하며, 항상 사고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우발사고는 이전에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고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유아에게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는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양육자의 보호가 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유아가 부딪치고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아들은 다치면서 크는 거야”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유아는 언제 어디서나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유아의 안전사고는 연령별, 발달수준별로 다양하게 발생 가능하므로 유아의 다양한 단계에서 발달능력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유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Allen, 1994).

인간에게 있어 기본적인 본능적 욕구가 안전이며 이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Maslow, 1968), 인간은 누구나 신체적·감정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해 지기를 바라며 이러한 안전에 관한 욕구는 현대의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안전(Safety)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분리하려해도 분리가 될 수 없다. 저연령 유아들은 신체적 혹은 인지적, 정서적 등의 영역에서 발달의 차이와 받아들이는 능력에 있어 차이가 많이 나므로 안전과 관련된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교육방법도 전문적이고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교육(Safety education)은 가장 먼저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특히 어린 아동의 경우 발달단계와 의존성으로 인해 유아기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어 부모의 역할이 중시된다(Russell, 1991).

유아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은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유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유아의 안전교육에 관한 실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유아를 일상생활에서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 실천을 비롯하여 안전교육 지식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혹은 바깥활동에서 안전을 위해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와 유아를 위해 안전교육에 관한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또한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유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양육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유아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만4-5세 취학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3년도 3월에서 6월 까지 총 4개월에 걸쳐서 부모교육 세미나 장에서 설문지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200부를 배포하여 총 136를 수거하였으나 불성실한 답변을 한 13부를 제외하고 총 123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2 연구방법

안전교육 실천과 안전교육 지식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문지 작성은 대학의 부교재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교재(김계자, 2007)를 바탕으로 일반적 배경 1문항, 학부모의 안전교육과 관련된 실천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학부모의 가정에서의 안전교육 실천 정도 4문항,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교육 실천 정도 11문항, 교통안전교육 실천 정도 10문항, 호흡기 질환의 안전교육 실천정도 8문항, 응급처치 안전교육 실천정도 7문항, 화재·화상 안전교육 실천정도 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학부모의 안전교육 지식에 관한 질문으로는 가정에서의 안전교육 지식정도,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교육 지식정도, 교통안전교육 지식정도, 호흡기질환 안전교육 지식정도, 응급처치 안전교육 지식정도, 화재·화상 안전교육 지식정도로 각각 5문항씩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질문지 구성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강연 경험이 많은 유아교육과 교수 1명과 병설유치원 교사 2명과 함께 현재 취학 전 유아와 학부모의 요구도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2.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 19.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빈도분석,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p < 0.05$, $p < 0.01$, $p < 0.001$ 범위에서 검증하였다. 연구를 위한 통계 분석은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안전교육 경험실태, 안전지식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학부모의 자녀수와 가족형태에 따른 안전교육 실천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 Duncan test를 실

시하였다. 셋째, 학부모의 안전교육 경험에 따른 안전교육 실천정도, 안전지식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본 연구를 위해 취학전 유아를 둔 학부모를 연구대상으로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20-25세(16.1%), 26-30세(6.5%), 31-35세(25.8%), 36-39세(25.8%), 40세 이상(25.8%)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은 고졸(25.8%), 전문대졸(22.6%), 대졸(32.3%), 대학원 졸(19.4%)로 나타났으며, 직장여부는 있다(45.2%), 없다(54.8%)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는 1명(29.0%), 2명(19.4%), 3명(51.6%)으로 나타났고, 가족형태는 핵가족(22.6%), 대가족(32.3%), 재혼가족(29.0%), 한부모 가족(16.1%)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 교육수준, 직장여부, 직업종류, 자녀의 수, 가족구성원을 보면 <Table 1>과 같다.

3.2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해 미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자가기입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은 총 200부를 배포하였고 그 중 136부(68.0%)가 수거되었으며, 불성실 응답 13부를 제외하고 총 123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연구 결과

4.1 안전교육 경험실태 분석

학부모가 경험한 안전교육 경험실태를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다. 안전교육과 관련된 경험은 있다(35.5%), 없다(64.5%)로 나타났고, 안전교육을 받은 경로는 지역사회(6.5%), TV 또는 인터넷(41.9%), 교육기관(25.8%), 세미나강좌(6.5%), 기타(19.4%)로 나타났다.

학부모가 경험한 안전교육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다. 안전교육 내용의 1순위는 교통안전교육(45.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화재화상 안전교육(35.5%), 가정에서의 안전교육(9.7%), 응급처치 안전교육(9.7%) 순으로 나타났다. 1+2순위에서도 교통안전교육(67.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화재화상 안전교육(51.6%), 응급처치 안전교육(38.7%), 가정에서의 안전교육(32.3%),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교육(9.7%)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objects

항목	빈도(n)	백분율(%)
연령	20-25세	16.1
	26-30세	6.5
	31-35세	25.8
	36-39세	25.8
	40세 이상	25.8
교육 수준	고졸	25.8
	전문대졸	22.6
	대졸	32.3
	대학원 졸	19.4
직장 여부	있다	45.2
	없다	54.8
자녀의 수	1명	29.0
	2명	19.4
	3명	51.6
가족 형태	핵가족	22.6
	대가족	32.3
	재혼가족	29.0
	한부모 가족	16.1
합계	123	100.0

<Table 2> Experience state of safety education of parents

항목		빈도(n)	백분율(%)
안전교육 경험	있다	44	35.5
	없다	79	64.5
교육경로	지역사회	8	6.5
	TV 또는 인터넷	52	41.9
	교육기관	32	25.8
	세미나강좌	8	6.5
	기타	24	19.4
합계		123	100.0

<Table 3> Safety education content of parents

항목		빈도 (n)	백분율 (%)
1순위	교통 안전교육	56	45.2
	화재·화상 안전교육	44	35.5
	가정에서의 안전교육	12	9.7
	응급처치 안전교육	12	9.7
1+2 순위	교통 안전교육	83	67.7
	화재·화상 안전교육	63	51.6
	응급처치 안전교육	48	38.7
	가정에서의 안전교육	40	32.3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교육	12	9.7

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교육 실천정도 분석

학부모의 자녀수에 따른 안전교육 실천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학부모의 자녀수에 따른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교육 실천정도, 응급처치 안전교육 실천정도, 화재·화상 안전교육 실천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교육 실천정도에서 2명($M=2.60$)이 1명($M=2.24$), 3명($M=2.2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응급처치 안전교육 실천정도에서 1명($M=2.59$), 2명($M=2.40$)이 3명($M=1.9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화상 안전교육 실천정도에서 1명($M=2.47$), 2명($M=2.67$)이 3명($M=2.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가족형태에 따른 안전교육 실천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학부모

의 가족형태에 따른 가정에서의 안전교육 실천정도,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교육 실천정도, 교통 안전교육 실천정도, 호흡기질환 안전교육 실천정도, 응급처치 안전교육 실천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가정에서의 안전교육 실천정도에서 핵가족($M=2.64$)이 한부모 가족($M=1.8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교육 실천정도에서 핵가족($M=2.66$), 재혼가족($M=2.58$)이 대가족($M=2.0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가족($M=2.09$)이 한부모 가족($M=1.6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 안전교육 실천정도에서 핵가족($M=2.57$), 대가족($M=2.46$), 재혼가족($M=2.60$)이 한부모 가족($M=2.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질환 안전교육 실천정도에서 핵가족($M=2.36$), 재혼가족($M=2.37$)이 대가족($M=1.9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응급처치 안전교육 실천정도에서 한부모 가족($M=2.57$)이 핵가족($M=2.08$), 대가족($M=2.0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Practice degree of safety eudcation according to number of children

항목	자녀수	M	SD	F(P)
가정에서의 안전	1명	2.08	0.69	2.212 (0.114)
	2명	2.46	0.81	
	3명	2.25	0.60	
건강한 생활 습관 안전	1명 ^a	2.24	0.58	3.909* (0.023)
	2명 ^b	2.60	0.32	
	3명 ^a	2.21	0.66	
교통 안전	1명	2.38	0.57	0.973 (0.381)
	2명	2.60	0.44	
	3명	2.45	0.64	
호흡기질환 안전	1명	2.35	0.73	1.806 (0.169)
	2명	2.31	0.42	
	3명	2.10	0.71	
응급처치 안전	1명 ^b	2.59	0.64	19.001*** (0.000)
	2명 ^b	2.40	0.35	
	3명 ^a	1.95	0.50	
화재·화상 안전	1명 ^b	2.47	0.39	21.533*** (0.000)
	2명 ^b	2.67	0.32	
	3명 ^a	2.05	0.50	

* p<0.05, ** p<0.01, *** p<0.001
 Duncan post hoc test, a<b

<Table 5> Practice degree of safety eudcation according to family type of parents

항목	가족형태	M	SD	F(P)
가정에서의 안전	핵가족 ^c	2.64	0.86	7.512*** (0.000)
	대가족 ^{bc}	2.33	0.48	
	재혼가족 ^{ab}	2.06	0.57	
	한부모 가족 ^a	1.85	0.62	
건강한 생활 습관 안전	핵가족 ^c	2.66	0.42	22.076*** (0.000)
	대가족 ^b	2.09	0.57	
	재혼가족 ^c	2.58	0.42	
	한부모 가족 ^a	1.69	0.49	
교통 안전	핵가족 ^b	2.57	0.66	5.102** (0.002)
	대가족 ^b	2.46	0.54	
	재혼가족 ^b	2.60	0.52	
	한부모 가족 ^a	2.03	0.47	
호흡기 질환 안전	핵가족 ^b	2.36	0.77	2.936* (0.036)
	대가족 ^a	1.97	0.86	
	재혼가족 ^b	2.37	0.34	
	한부모 가족 ^{ab}	2.23	0.41	
응급처치 안전	핵가족 ^a	2.08	0.42	4.466** (0.005)
	대가족 ^a	2.06	0.61	
	재혼가족 ^{ab}	2.32	0.47	
	한부모 가족 ^b	2.57	0.78	
화재·화상 안전	핵가족	2.11	0.57	2.193 (0.092)
	대가족	2.26	0.58	
	재혼가족	2.40	0.41	
	한부모 가족	2.40	0.34	

* p<0.05, ** p<0.01, *** p<0.001
 Duncan post hoc test, a<b<c

4.3 학부모의 안전교육 안전지식 수준 분석

학부모의 안전지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Table 6>과 같다. 가정에서의 안전지식(M=3.3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호흡기질환 안전지식(M=3.00), 교통 안전지식(M=2.79), 화재·화상 안전지식(M=2.74),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지식(M=2.55), 응급처치 안전지식(M=2.29)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 안전지식의 전체 평균은 16.48/30점으로 나타났다.

4.4 학부모의 안전교육 경험에 따른 안전교육 실천정도과 안전지식 분석

학부모의 안전교육 경험에 따른 안전교육 실천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7>과 같다. 분석결과

학부모의 안전교육 경험에 따른 응급처치 안전교육 실천정도, 화재·화상 안전교육 실천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응급처치 안전교육 실천정도에서 없다(M=2.38)가 있다(M=1.9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화재·화상 안전교육 실천정도에서 없다(M=2.48)가 있다(M=1.9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안전교육 경험에 따른 안전지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8>과 같다. 분석결과 학부모의 안전교육 경험에 따른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지식, 교통 안전지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지식에서 있다(M=3.09)가 없다(M=2.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통 안전지식에서 있다(M=3.55)가 없다(M=2.2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Safety knowledge level of parents

항목	M	SD	순위
가정에서의 안전지식	3.39	1.07	1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지식	2.55	1.16	5
교통 안전지식	2.79	1.27	3
호흡기질환 안전지식	3.00	1.14	2
응급처치 안전지식	2.29	1.17	6
화재·화상 안전지식	2.74	0.99	4
학부모의 안전지식 전체	16.48	4.23	

<Table 7>Practice degree of safety eudcation according to safety education experience of parents

항목	교육여부	M	SD	T(P)
가정에서의 안전	있다	2.23	0.81	-0.162 (0.871)
	없다	2.25	0.60	
건강한 생활 습관 안전	있다	2.31	0.59	0.210 (0.834)
	없다	2.29	0.60	
교통 안전	있다	2.44	0.62	-0.206 (0.837)
	없다	2.46	0.57	
호흡기질환 안전	있다	2.17	0.71	-0.587 (0.558)
	없다	2.24	0.66	
응급처치 안전	있다	1.94	0.43	-4.236*** (0.000)
	없다	2.38	0.61	
화재·화상 안전	있다	1.95	0.43	-6.245*** (0.000)
	없다	2.48	0.45	

* p<0.05, ** p<0.01, *** p<0.001

<Table 8> Safety knowledge according to safety education experience of parents

항목	교육여부	M	SD	T(P)
가정에서의 안전	있다 없다	3.64 3.25	1.21 1.02	1.850 (0.068)
건강한 생활 습관 안전	있다 없다	3.09 2.25	1.45 0.91	3.598** (0.001)
교통 안전	있다 없다	3.55 2.29	1.13 1.16	5.771*** (0.000)
호흡기질환 안전	있다 없다	3.00 3.00	0.77 1.34	0.000 (1.000)
응급처치 안전	있다 없다	2.36 2.25	1.03 1.29	0.512 (0.610)
화재·화상 안전	있다 없다	2.64 2.80	1.03 1.01	-0.879 (0.381)

* p<0.05, ** p<0.01, *** p<0.001

5. 연구 고찰

본 연구는 학부모가 경험한 안전교육 경험실태, 안전교육 실천정도, 안전교육 경험에 따른 안전교육 실천과 안전지식에 대해 연구하여 유아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5.1. 안전교육 경험실태

학부모가 경험한 안전교육경험 실태에서 안전교육과 관련된 경험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안전교육을 받은 경로는 지역사회, TV 또는 인터넷, 교육기관, 세미나 강좌, 기타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또한 안전교육 내용으로는 교통안전교육, 화재화상 안전교육, 가정에서 안전교육, 응급처치 안전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학부모들은 주로 다양한 안전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로 지역사회, TV 또는 인터넷 등으로 안전교육을 받고 있었고, 교육내용으로는 교통안전교육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화재·화상 안전교육, 응급처치 안전교육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부모들은 주로 지역사회에서 주관하는 교육기관이나 다양한 메스콤을 통한 안전교육을 선호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내용으로는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2. 안전교육 실천정도

5.2.1 학부모의 자녀수에 따른 안전교육 실천정도

학부모의 자녀수에 따른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교육 실천정도, 응급처치 안전교육 실천정도, 화재·화상 안전교육 실천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부모의 자녀수에 따른 안전교육 실천정도의 차이에서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교육 실천정도는 자녀수 2명이 자녀수 1명과 3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응급처치 안전교육 실천정도에서 자녀수 1명과 자녀수 2명이 자녀수 3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화상 안전교육 실천정도에서 자녀수 1명과 2명이 자녀수 3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른 안전교육 실천정도에서 주로 자녀수 1명과 2명일 경우 안전교육 실천정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자녀수 보다는 적은 자녀 수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쉬운 것으로 보이며 3명의 자녀일 경우에는 부모의 직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녀들끼리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안전교육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2.2 학부모의 가족형태에 따른 안전교육 실천정도

학부모의 가족형태에 따른 안전교육 실천정도 차이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가정에서의 안전교육 실천정도,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교육 실천정도, 교통 안전교육 실

천정도, 호흡기질환 안전교육 실천정도, 응급처치 안전교육 실천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정에서의 안전교육 실천정도는 한부모 가족보다는 핵가족에서 주로 실천을 많이 하였고,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교육 실천정도는 핵가족, 재혼가족이 대가족 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가정에서의 안전교육 실천정도가 핵가족에서 주로 실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 외에 성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정에서 안전교육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교육 실천정도가 핵가족과 재혼가족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핵가족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가로 인한 맞벌이 부부 현상으로 부재중일 경우를 대비하여 자녀들을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교육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재혼가족에서는 다양한 생활습관을 가진 가족이 결합한 가족형태이므로 서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해 서로 맞추기 위한 안전교육을 위해 실천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교육 실천정도에서는 핵가족, 대가족, 재혼가족이 한부모 가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인의 구성이 한부모 보다는 성인 2명이상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호흡기질환 안전교육 실천정도에서는 핵가족과 재혼가족이 대가족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응급처치 안전교육 실천정도에서는 한부모 가족이 핵가족과 대가족 보다 안전교육 실천이 높게 나타났다.

호흡기질환 안전교육 실천정도 또한 핵가족과 재혼가족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대가족에서는 성인들이 안전교육을 시킬 책임이 분산되지만, 핵가족이나 재혼가족에서는 성인의 구성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성인 스스로가 나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응급처치 안전교육 실천정도는 핵가족과 대가족 보다는 한부모 가족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응급처치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성인은 한부모 밖에 없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3. 학부모의 안전지식 수준

학부모의 안전지식 수준은 가정에서의 안전지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호흡기질환 안전지식, 교통안전지식, 화재·화상 안전지식,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지식, 응급처치 안전지식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안전지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유아

들이 교육기관 이외에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안전지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호흡기질환 안전지식은 유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건조할 때 감기를 비롯한 기침, 기관지염, 천식, 백일해, 폐렴, 비염, 축농증, 폐결핵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호흡기질환에 관한 안전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교통안전지식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주거공간, 놀이공간이 축소되는 원인으로 교통사고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안전지식 수준이 높았고, 화재·화상 안전지식은 대부분 성인들이 주의하면 미연에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 이므로 학부모가 안전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지식은 유아기부터 건강하고 안전하며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안전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응급처치 안전지식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대처하기 위하여 학부모들은 응급처치에 대한 안전지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4. 학부모의 안전교육 경험에 따른 안전교육 실천정도와 안전지식

학부모의 안전교육 경험에 따른 응급처치 안전교육 실천정도, 화재·화상 안전교육 실천정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응급처치 안전교육 실천정도는 주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재·화상 안전교육 실천정도에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들이 응급처치 안전교육에 대하여 딸꾹질 하거나 코피가 나거나 하는 등 가장 일상적인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머리를 다치거나 독극물을 마셨거나 물에 빠졌을때, 뱀에게 물렸을 때 등의 가상 상황에서의 응급처치와 관련된 실습이 부족하여 응급처치 안전교육 실천정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재·화상 안전교육 실천정도에서는 주로 발생하는 전기화재, 가스화재, 화상 등에 대해 이론적인 지식은 알고 있지만, 가상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실습이 부족하여 실제상황에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의 안전교육 경험에 따른 안전지식 차이에서는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지식과 교통 안전지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안전지식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안전지식에 대한 학부모의 경험이나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지식에 따른 교육여부에서는 교육이 있는 것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안전지식에 따른 교육여부 에서도 교육이 있는 것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지식과 교통안전지식 교육여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지식은 유아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교통안전지식은 유아가 독립적으로 행동을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유아 스스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안전한 통원과 횡단 등에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게 하고 안전한 태도와 행동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Reference

- [1] Kim Young-sil, Youn Jin-ju, Yu Su- Jung(2009). "A Comparison of Effects of Discussion-Centered and Demonstration-Centered Instruction Methods of Traffic Safety Education in Young Children's Traffic Safety Knowledge" Study on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6), pp. 397-419.
- [2] Kim In Jung(2012), "An Empirical Study on the Safety Education and Safety Accident Status in Child-Care Facilities and Homeroom Teacher's Recognition about the Safety Education Range and Methods",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Science Society, 14(4), pp125-136.
- [3] Kim In Jung(2013), "Analysis of perception and parent education demand through parent experience of fire"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Science Society 15(2). pp85-93.
- [4] Han Min Kyung, Kim Soo Kyang(2012). "Research on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s and Practices regarding the Safety Education of Natural Disasters for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essay, 16(1), pp. 135-162.
- [5] Oh, Hyo-Seon, Hong, Hae-Kyung (2013). "A study on early childhood safety program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 Study on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8(1), pp41-69.
- [6] S.C. Park and J.C. Cho(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ingle Station Fixed Temperature Detector of Low Power Consumption for

Residential Fire Prevention", Korean Institute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ol. 24, No. 6, pp. 61-68.

- [7]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2010), "2009 Actual Condition of Fire Accident in Korea",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 [8] Freda, B.(1995). Developing personal safety skills in children. London : Jessica Kingsley Publishing.
- [9] Scott. R. J.(1992). Preventing injury : A safety curriculum for reschool-kindergarten.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Alabama University.

저 자 소 개

김 인 정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졸업(교육학 박사)
(현)한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
관심분야: 교통안전, 실내안전,
화상안전

주소 : 강원도 동해시 지양길 200 한중대학교